

SM C&C LETTER

2023.10 | No.168

이/번/달 줄/거리

- 광고 사업 | 모든 것은 자신감에서 온다
- 콘텐츠사업 | “나 킹 스미스, 이제 슈퍼스타가 되어 볼까 해!”
- 매니지먼트 | ‘선과 악의 공존’ 배우 윤태영의 변신
- 여행 사업 |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두바이
- SMterview | 기업 출장 전문가가 미용 가위 잡은 사연은?

ADVERTISING



모든 것은 자신감에서 온다

임플란트 전문 브랜드 덴티움의 설립 23년 만에 처음 광고 캠페인을 선보였습니다. 신뢰감 있는 배우 송강호와 함께 브랜드 친화력을 높인 것은 물론, 시장 선도 기업임을 공고히 했는데요. SM C&C가 함께 한 덴티움의 첫 광고 캠페인 제작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 자세히 보기](#)

《 SM On Air 》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톡 퀵·배송> 캠페인



동아제약
<박카스맛 젤리: 맛 좀 미쳤다> 편

CONTENTS BIZ.



“나 킹 스미스, 이제 슈퍼스타가 되어 볼까 해!”

개그맨 황제성, 아니 그의 부캐릭터 킹 스미스의 고군분투기가 화제입니다.
'킹 받는' 세계관이 재미있는 유튜브 웹 예능 <킹스미스>인데요.
과연 킹 스미스는 슈퍼스타가 되어 샘 스미스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슈퍼스타 도전기와 제작진의 이야기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히 보기](#)

MANAGEMENT



‘선과 악의 공존’ 배우 윤태영의 변신

SBS 화제작 <7인의 탈출>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흰칠한 피지컬에 단단한 눈빛까지, 몰입도 높은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 윤태영의 본업 모멘트를 소개합니다.

[+자세히 보기](#)

TRAVEL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두바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세계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 사인까지.
세계 최고가 모여 있는 곳, 바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입니다.
여행사업Unit 투어익스프레스팀이 소개하는 두바이의 모든 것!

[+자세히 보기](#)

SMTERVIEW



기업 출장 전문가가 미용 가위 잡은 사연은?

여행업계 법인영업팀은 무슨 일을 할까? 해외 출장이 잦은 사람은 어떤 기념품을 살까?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여행지는? 궁금증에 답을 드립니다.
비즈니스 출장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SM C&C 여행사업Unit 법인영업1팀 송해빈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CAMPAIGN



10월 소통 캠페인의 한 줄 메시지는
광고사업Unit Purple팀 김민주님의 아이디어로 제작됐습니다.
SMC&C LETTER는 구성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소통을 위한 한 줄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캠페인 참여하기](#)

01

ADVERTISING

광고사업

모든 것은 자신감에서 온다



캠페인 제작 · 기획

캠페인 1센터 2팀	황수연 팀장 양산성 김성렬	SUMMER팀	홍수경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상규 카피라이터 오주영 카피라이터	이가은 아트디렉터 강주희 아트디렉터 서민정 아트디렉터
------------	-------------------	---------	--	-------------------------------------

글. 광고사업Unit Campaign TC그룹 Telecom Campaign 1팀 이하늘

“

임플란트, 치아와 잇몸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환자가 더 잘 알까? 의사가 더 잘 알까?

임플란트 전문 브랜드 덴티움의 창사 23년 만에 첫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대중들에게 단순히 인터넷 검색과 지인의 말을 통해 치료와 수술을 결정

하기 보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치과 의사가 선택한 덴티움에게 믿고 맡기라는 독보적인 자신감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잘못된 임플란트 선택 기준을 깨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덴티움의 등장

커머셜 광고 한번 없이도 국내 점유율 2위이자 세계 6위인 임플란트 브랜드, 덴티움의 저력은 우직하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진정성에 있었습니다. 덴티움의 제품을 향한 집요함은 오랜 시간 치과의사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치과의사들의 긍정적인 인식이라는 든든한 자산을 바탕으로 그들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임플란트의 기준을 제시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했습니다.

임플란트라는 제품의 특성상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카테고리의 제품이라는 허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임플란트라는 제품 자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했습니다. 또 비전문적이고 무분별한 정보에 기대어 잘못된 기준으로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문제점을 제시하며, 덴티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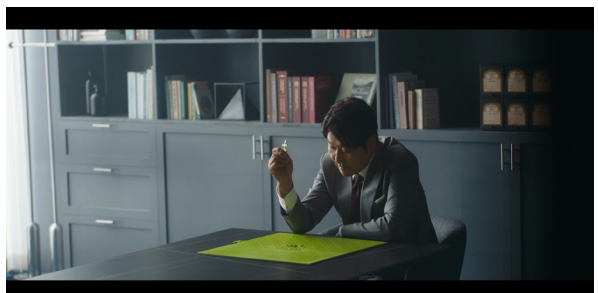


“

22년 장기 임상 데이터에 97.9%의 생존율까지!
덴티움,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덴티움만의 독보적인 자신감을 치과의사를 통해 믿음직스럽게!

덴티움은 튼튼하고 오래가는 임플란트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덴티움이라는 브랜드는 오랜 시간 고집스럽게 안정적인 임플란트만을 연구한 만큼, 22년 동안 쌓인 장기 임상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여기에 완벽한 임플란트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 끝에 마침내 97.9% 생존율에 도달하는 임플란트 생산이라는 독보적인 R&D 팩트도 보유하고 있었죠.

“

100세 시대인데,
임플란트 수명도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닐까?
임플란트, 심기만 하면 끝난 걸까?

덴티움은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선택하는 임플란트, 가격이 저렴한 임플란트, 유명한 임플란트가 아닌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가 새로운 임플란트 선택의 기준임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덴티움의 차별적인 장점들은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새로운 기준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치과의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고 믿음직스러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했습니다. 덴티움의 차별적인 강점을 메이커 보이스로 전달하기보다, “치과의사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라는 메시지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대중들은 자연스럽게 덴티움의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거 임플란트 광고 맞아?
올 추석에 개봉하는 영화 광고 아니야?

**대한민국의 대표 배우, 송강호와 함께하여
마치 영화의 한 장면같이!**

이번 캠페인은 특별히 유일무이한 국민 배우, 송강호와 함께했습니다. 송강호를 모델로 기용해 특유의 진지하지만 친근한 이미지로 덴티움이 대중들에게 다가가는데 기여했습니다. 배우의 아우라와 스크린에서나

볼 법한 연기력이 빛을 발한 캠페인 영상의 고급스러움이 더해지며 대중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시장이 연령대가 높은 타겟 공략을 목표로 하는 만큼 우후죽순 트로트 가수를 모델로 기용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송강호를 이례적으로 등장시킴으로써 돌출도 있는 캠페인으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

좋은 제품이 널리 쓰이게

덴티움은 “좋은 제품이 널리 쓰이게”라는 신념 아래, 완벽한 임플란트를 위해 오늘도 연구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이러한 덴티움의 진정성이 대중들에게 더 닿을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나 킹 스미스, 이제 슈퍼스타가 되어 볼까 해!"



글. 콘텐츠사업Unit 콘텐츠비즈니스그룹 콘텐츠마케팅팀 조송이, 강재은

개그맨 황제성이 타고난 재치와 입담을 무기로 예능 프로그램 및 유튜브 등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tvN <코미디빅리그> 속 다양한 캐릭터는 물론, 배우 이경영을 패러디한 황경영, 영국 가수 샘 스미스(Sam Smith)에게 각인된 부캐(부캐릭터) 킹 스미스까지 '천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샘 스미스의 내한 공연이 확정된 후, 킹 스미스의 활약을 기대하는 팬들의 요청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SM C&C 콘텐츠사업Unit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유튜브 <킹스미스>에 황제성, 아니 킹 스미스의 슈퍼스타 도전기를 담아낸 것인데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최근 공개된 <킹스미스>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슈퍼스타 도전기를 기획한 조송이, 강재은 PD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개그맨 황제성의 더욱 다양한 활약상은 지난 7월호에 공개된 콘텐츠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3.06.21 - \[REPORT/MAGAZINE\]](#)
[제대로 전성기 맞았다!](#)
[SM C&C와 한 식구 된 '킹 스미스' 황제성](#)

유튜브에 등장한 그, 킹 스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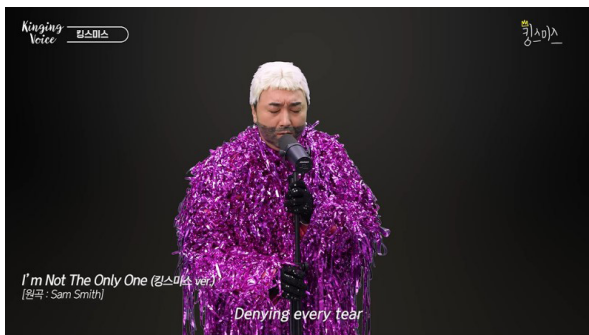


▲유튜브 <킹스미스> 로고

유튜브 <킹스미스>는 개그맨 황제성이 킹 스미스로 출연하는 SM C&C STUDIO의 오리지널 정규 콘텐츠입니다. SM C&C STUDIO는 황제성 등이 소속되어 있는 SM C&C 콘텐츠사업Unit의 글로벌 영상 콘텐츠 스튜디오로, 에스파 단독 리얼리티 <Synk Road>, 레드벨벳 <레벨업 프로젝트>, 엑소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킹스미스>는 내한 예정인 샘 스미스를 만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킹 스미스의 에피소드를 그리는 웹 예능입니다. <킹스미스> 속 세계관이 묘하게 구미를 당깁니다. 먼 나라 영어 마을 출신의 킹 스미스가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 하는 상황이나, 한국 문화를 배우고 보컬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이 웃음을 유발할 예정입니다. 과연 킹 스미스는 슈퍼스타가 되어 샘 스미스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파란만장한 그의 여정을 살짝 들여다봅니다.

EP.01 킬링 보이스? NO! 킹-잉 보이스



▲ 킹 스미스



▲ 가수 샘 스미스

지난 1일 SM C&C STUDIO 유튜브 채널에는 <킹스미스> 첫 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됐습니다. 킹 스미스가 '킹-잉 보이스(Kinging Voice)'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것인데요. 영상에는 샘 스미스의 노래를 커버하는 킹 스미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킹-잉 보이스'는 딩고 뮤직의 인기 콘텐츠 '킬링 보이스(Killing Voice)'를 패러디한 것으로, 킹 스미스의 예상치 못한 가창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라이브 실력에 깜짝 놀란 시청자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날 킹 스미스는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Desire>, <I'm not here to make friends>, <Unholy>를 메들리로 불렀는데요. 킹 스미스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Unholy>라고 하네요.

핑크색 의상도 화제였습니다. 샘 스미스와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외형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끈 것입니다. 이 의상은 제작진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만든 핸드메이드입니다. 킹 스미스도 굉장히 만족했다는 그 의상, 아직 못 보셨으면 SM STUDIO 오리지널 콘텐츠 <킹스미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낯설지만 익숙한(?) 건배사를 들은 킹 스미스

EP.02 망원동에 나타난 킹 스미스

<킹스미스>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킹 스미스의 망원동 나들이가 담겼습니다. 샘 스미스의 내한 소식을 듣고 세상 밖으로 나온 킹 스미스가 MZ 세대들이 즐겨 찾는 망원동에 방문한 것인데요. 그는 거리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인기 간식 탕후루를 사 먹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는 킹 스미스의 친구 강남이 출연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아직 한국 문화가 낯선(?) 킹 스미스에게 한국의 트렌드를 알려주는 강남(익히 알려졌지만 방송인 강남은 2022년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인)과의 케미는 그 조합만으로 웃음을 예고합니다.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한국의 술자리 예절, 최근 유행하는 건배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강남이 킹 스미스에게 술자리에서 유행하는 건배사를 제안했는데요. 킹 스미스는 마치 황경영(황제성+이경영, 황제성의 또 다른 부캐)이 된 것처럼 건배사를 완벽하게 소화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Made By SM C&C STUDIO

안녕하세요. <킹스미스> 티저 영상 및 2회 연출을 담당한 조송이 PD입니다. 처음에는 부담도 있었지만,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킹스미스> 기획부터 편집, 후반 작업까지 애정을 가지고 참여한 콘텐츠라 기대가 큼니다. 우리의 황제성 님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제작진과 호흡을 맞춰 주셔서 즐겁게 작업하고 있

답니다. 이어지는 회차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킹스미스> 연출을 담당하고 있는 강재은 PD입니다. 저는 프로그램 연출뿐 아니라 매 회차 구성과 대본 작성, 편집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어 더욱 애착이 가는데요.

아직 2회밖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웃기고 알찬 콘텐츠가 준비돼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가볍고 편하게, 또 즐겁게 보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퍼뜨려주세요!



▲ 유튜브 <킹스미스> 답사 현장에서 조송이 PD(위), 강재은 PD(아래)

'선과 악의 공존' 배우 윤태영의 변신



글. 매니지먼트Unit 언론홍보그룹 언론홍보팀 채지현

지난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SBS의 신작 금토드라마 <7인의 탈출>이 연일 화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말과 욕망이 뒤엉켜 한 소녀가 실종된 후, 실종에 연루된 악인 7인의 생존 투쟁과 그들을 향한 피의 응징을 그린 피카레스크* 복수극입니다.

*악인이 주인공인 소설 또는 이야기 구성 방식

<7인의 탈출>은 빠른 전개와 눈을 땔 수 없게 만드는 사건들의 향연, 명품 배우들의 열연 등이 돋보이는데

요. 그 안에 “이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는 강렬한 카피만큼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강기탁 역으로 활약 중인 배우 윤태영입니다. 피와 땀, 흠먼지에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극에 몰입도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SM C&C와 한 식구가 된 후 오랜만에 시청자 앞에 선 그의 ‘본업 모멘트’를 소개합니다.

웰컴 투 김순옥 월드

배우 윤태영은 1996년 SBS <아름다운 그녀>로 데뷔했으며, 이후 MBC <태왕사신기>, <심야병원> <제왕의 딸, 수백향>, <야경꾼 일지>, OCN <동네의 영웅> 등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선과 악을 넘나드는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증명해 왔죠.

그가 차기작으로 <7인의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MBC <내 딸, 금사월>, SBS <펜트하우스> 시리즈 등을 히트시키며 작품 속 독보적 세계관을 구축해 온 김순옥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로써 윤태영이 '김순옥 월드'에 입성하게 됐는데요.

그는 <7인의 탈출>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파 보스이자 태백엔터테인먼트 대표 강기탁 역을 맡았습니다. 원수도 은혜도 반드시 갚는 의리파 캐릭터로, 여러 인물들과 얽히고설킨 관계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 출처 = 초록뱀미디어, 스튜디오S

독보적 존재감으로 <7인의 탈출> 접수

<7인의 탈출>은 여타 드라마와 달리 악인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층 강렬한 복수극을 펼칩니다. 지난 방송에는 여러 악인들이 등장, 극을 아찔하게 메웠는데요. 그 가운데 경찰서로 연행된 강기탁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흰철한 피지컬이 보는 이들을 압도, 작은 움직임으로도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비록 회사를 양준

모(윤종훈 분)에게 뺏겼지만 민도혁(이준 분)에게 “미안하다. 너희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라며 참 어른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강기탁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죠.

윤태영은 캐릭터를 밀도 있게 그려 내기 위해 감정, 행동, 말투 등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구축했다는 후문입니다.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몸에 맞춘 듯한 쓰리피스 슈트까지 야누스적인 외적 변신은 물론, 탄탄한 내공에 기반한 힘 있는 연기에서 그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출처 = SBS <7인의 탈출> 방송 화면 캡처

<7인의 탈출> PHOTO SHOT BEHIND

SM C&C 매니지먼트Unit 언론홍보팀 외장하드에서 꺼낸 윤태영의 비하인드 컷을 공개합니다.
새로운 '중년 섹시'로 떠오를 윤태영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역동적인 무드를 오롯이 담아낸
추격 혹은 탈출 분위기 연출”**

TMI 포인트

오랜만에 찍는 드라마 포스터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카메라 셔터 소리를박자 삼아 윤태영만의 노련함을 아낌없이 보여줬습니다.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한 눈빛과 무심하게 취한 포즈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미소 하나로 분위기 180도 반전 효과!
이 와중에 기념사진은 못 참지.”**

TMI 포인트

냉소적인 분위기로 몰입 중 갑자기 따뜻한 분위기? '기념사진'이라는 단어에 부드럽게 웃어주는 모습을 비하인드에 담아봤습니다. 배우 윤태영과 캐릭터 강기탁의 틈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열정에 박수를 쳤습니다.



**“강인한 눈빛과 포즈만으로도
강기탁의 서사가 궁금해져!”**

TMI 포인트

거센 빗줄기를 표현하기 위해 세트장에 물웅덩이가 등장했습니다. 강풍기까지 더해져 처절한 환경이 조성됐죠. 윤태영은 이대로 쓰러질 수 없는 캐릭터의 서사를 광기 어린 표정으로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비록 온몸은 젖었지만 캐릭터 동기화는 완료가 됐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두바이



글. 여행사업Unit B2C그룹 투어익스프레스팀 김인희

‘사막 위의 기적’으로 불리는 곳. ‘황금 도시’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은 곳. 바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여행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지난 5월 세계 최대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의 ‘여행자 초이스 어워드(Travellers’ Choice Award)’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Best Global Destination)’로 선정되었는데요. 런던, 로마, 파리 등을 제치고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결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두바이 경제 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만 약 467만 명의 관광객이 두바이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7%가량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98%에 달합니다. 두바이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발길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여

행객들의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SM C&C 여행사업Unit 투어익스프레스팀 역시 두바이 자유여행, 가족여행 등 다채로운 여행 상품들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여행 전에 알아두면 좋을 두바이의 모든 것, 지금 소개합니다.

세계 최고가 모인 도시

두바이는 페르시아만 남동쪽 해안에 위치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최대 도시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토후국* 연합체로 구성돼 있는데, 두바이는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여행지죠. 거주민의 약 80%가 외국인인 글로벌 도시로, 약 200여 개의 국가 내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아시아-인도 등에서 영국의 지배·보호 하에 있던 나라를 말한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연방의 구성국, 오만이슬람왕국, 카타르 등이 있다.



▲ 출처 = 두바이 관광청

두바이에는 여러 '세계 최고'가 모여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세계에서 가장 큰 액자' 등 수많은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최근에는 두바이의 하타 지역 내 설치돼 있는 하타 사인(Sign)이 '세계에서 가장 큰 랜드마크 사인'으로 기네스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황금 도시'로 불릴 정도로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곳이지만, 여전히 전통 문화를 간직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영화 <알라딘>에서 본 듯한 전통시장을 지나 초호화 쇼핑몰과 고층 빌딩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것이 매력으로 꼽힙니다.

선선한 11월~3월이 여행 최적기



▲ 출처 = 두바이 관광청

두바이는 1년 내내 화창한 날씨를 자랑하는 사막 기후입니다. 때문에 여행 중 비를 만날 확률은 극히 적습

니다. 계절은 여름과 겨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름인 5월부터 9월까지의 일 평균 기온이 30도 후반~40도 초반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강수가 거의 없고 습도가 낮아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겨울인 10월부터 4월까지의 일 평균 기온이 24도~30도 사이를 오가죠.

통화는 디르함 (AED, Arab Emirates Dirham)



▲ 출처 = 네이버 환율 정보 (23.9.21 기준)

두바이는 디르함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며, 'AED'를 약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광 시 원화 및 달러보다는 현지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수수료가 낮은데요. 다만 디르함이 주요 해외 화폐가 아닌 국내에선 환전이 어렵기 때문에, 현지에서 달러로 환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997년부터 'USD 1=AED 3.67'의 고정 환율을 유지하고 있어, 환전소의 수수료 외 변동률

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화로 계산 시 AED 1=약 350원 으로 계산하면 좋습니다.

투어익스프레스팀이 추천하는 두바이 관광지

1.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 & 두바이 몰(The Dubai Mall)



부르즈 할리파는 높이 828m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124층, 125층에 걸친 전망대와 148층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555m)에서 경이로운 두바이 전경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 옆에 위치한 두바이 몰도 놓치지 마세요. 쇼핑, 엔터테인먼트, 레저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약 1,200개 이상의 매장과 대형 백화점, 수백 개의 레스토랑 및 카페가 입점해 있습니다.

두바이 몰의 음악 분수 관람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두바이 몰 앞에 위치한 분수에서 펼쳐지는 물과 음악, 조명의 하모니는 이미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악 분수는 부르즈 할리파 전망대 등에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2. 버즈 알 아랍(Burj Al Arab)



‘아랍의 탑’이라는 의미의 버즈 알 아랍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메리아 해안에 있는 호텔입니다. 밤이 되면 화려한 외부 조명이 돛 모양의 건물을 감싸 장관을 연출합니다.

전 객실은 복층의 스위트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VIP 여행의 최정점 서비스인 ‘버틀러 서비스’ 등도 누릴 수 있어 7성급 럭셔리 호텔로 불립니다.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호텔 내부를 투어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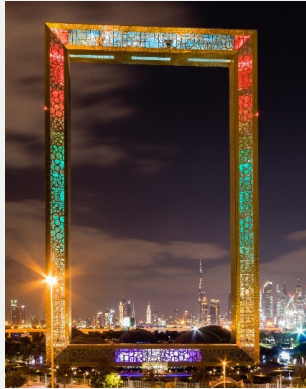
3. 사막 사파리 투어



두바이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막 사파리 투어도 추천합니다. 광활한 사막을 드라이브하는 것은 물론, 황금빛 사막을 배경으로 인생샷도 남길 수 있습니다. 투어 업체에 따라 클래식카, 4륜 스쿠터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사막을 달리다 보면 오릭스, 톰슨가젤 등 낮선 동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4. 두바이 프레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150m 높이의 액자 형태 건물입니다. 정상의 이동 통로에는 전망대가 마련돼 있는데요. 한쪽에선 역사지구로 대표되는 두바이의 과거 모습을, 반대쪽에서는 다운타운의 현대적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프레임을 배경으로 한 인증샷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5. 두바이 근교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 여행 시 아부다비 일일 투어도 고려해 보세요.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로, 두바이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Sheikh Zayed Grand Mosque Center)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 중 하나로, 야경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또 금과 대리석으로 꾸며진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Emirates Palace Hotel)도 볼 수 있는데요.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금가루가 뿌려진 커피를 판매하고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알아 두면 좋을 에티켓 및 꿀팁

두바이는 다양한 패션과 문화를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여행지를 방문할 땐 그 곳에 남아있는 두바이 현지 관습 및 문화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두바이의 역사지구 및 종교 기관 등을 방문할 때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스크 방문 시에는 노출 없는 옷을 입어야 하고, 여성의 경우 입장 전 머리를 스카프 등으로 가려야 합니다.

주류 구매와 관련한 팁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사실 두바이는 이슬람 문화에 따라 마음대로 술을 팔거나 살 수 없도록 규제해 왔습니다. 21세 이상의 비(非)무슬림 여행객일지라도 이를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고, 주류 물가도 비싼 편이었죠. 하지만 올해 초 두바이 당국이 주류에 적용해 왔던 30%의 주류세를 1년간 임시로 폐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편

두바이가 속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보다 약 5시간이 느립니다. 한국에서 두바이까지는 비행시간으로 약 10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대한항공, 에미리트항공이 두바이 직항편*을 운영하고 있어 여행 시 참고해 주세요..

*스케줄은 항공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 951편 매일 운항

인천 출발 13시 30분 - 두바이 도착 18시 55분

- 952편 매일 운항

두바이 출발 22시 25분 - 인천 도착 12시 05분 +1



에미레이트항공

- 323편 매일 운항

인천 출발 23시 40분 - 두바이 도착 04시 55분 +1

- 322편 매일 운항

두바이 출발 03시 30분 - 인천 도착 16시 50분 +1

기업 출장 전문가가 미용 가위 잡은 사연은?



SM C&C에는 어떤 사업이 있을까, 어떤 팀들이 모여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을까. [SMterview]가 SM C&C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다양한 주인공들을 만납니다. 어느 날은 유익한 업무 정보가, 또 어느 날은 고단한 사회생활 에피소드가 담길 예정입니다. 어쩐지 공감과 위안이 되는 다양한 삶 속으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SM C&C 여행사업Unit 법인영업1팀에서 일하고 있는 송해빈입니다.

제가 속한 법인영업1팀은 영업을 통해 기업 고객과 계약을 맺고, 그 기업에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호텔, 비자 등 출장을 위한 업무 대행은 물론 비용 절감 및 출장 관리 등 매니지먼트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죠. 기업의 인센티브 여행이나 학회 등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루틴도 궁금합니다.

기업에서 먼저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영업 업무는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저희를 어필하는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하죠.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저희를 통해 출장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얼마나 차별화된 출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리는 과정입니다.

기업 발굴부터 프레젠테이션, 계약까지 직접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임감도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담당하게 된 기업이 해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출장을 더 자주 나가게 되는 과정들을 함께 할 때 기분이 너무 뿌듯하고요. 그게 제가 법인영업 업무를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행업에 근무한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011년에 처음 시작했고, 중간에 회사를 잠깐 떠나 있었던 시간을 제외하고도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대학에서 관광경영학을 전공하고 SM C&C의 여행사업 Unit 전신인 비티앤아이(BT&I)에 입사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전공부터 입사까지 자연스러운 루트였네요.

학부 재학 중에 회사 면접 기회가 있었거든요. 회사에 대한 공부도, 영어로 자기소개도 준비를 했죠. 그날 여러 학생들이 함께 면접을 봤는데, 당시 면접관이었던 상무님과 거의 일대일로 대화를 할 정도로 잘 통했던 기억이 납니다. 속으로 ‘붙었다!’ 했죠.(웃음) 결국 저 혼자 붙었더라고요. 나중에 상무님께 여쭙보니, 제 성향이 법인영업 업무에 잘 맞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착하게 생긴 얼굴도 한몫했다고….

결국 얼굴로 뽑히셨다는?

오해하지 마세요. 착. 하. 게. 생겼다고 하셨어요. 사실 착하게 생겼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요?) 잘 생겼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서.

외모도 성향도 잘 맞는 업무를 하시다가 잠깐 여행업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회의감을 느끼기 마련이잖아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던 것 같아요. 다른 일도 배워보고 싶었고요.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시기에 ‘그것’을 만난 거죠. 코로나요. 코로나와 함께 약 3년을 쉬었습니다.

아무래도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니까요. 쉬는 동안엔 뭘 하셨어요?

가장 먼저 제주도에 내려가 한 달을 살았습니다. 많이 놀고먹었죠. 막 퇴사를 한 시점이라 주머니 사정이 좋

았거든요.(웃음) 퇴사 이후의 계획이 모호한 때였는데 그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퇴사와 제주도 한 달 살기라니. 많은 직장인들의 로망을 실천하셨네요.

주변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제주도에 놀러 왔는데 용감하고 멋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직장인은 누구나 가슴에 사표를 품고 산다고 하잖아요. 품었던 것을 꺼내 놓고 훌훌 떠난 모습이 용감해 보였나 봅니다. 사실 용감보다는 무모에 가까웠는데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돌아와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고민 끝에 시작하게 된 건 반려동물 미용이었어요.

상상도 못 한 전개인데요?

처음 반려동물 미용을 배울 때는 금방 필드에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1년 정도 배웠고 2급 자격증까지 취득은 했는데,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반려견 조이를 직접 미용할 실력은 된답니다. 저와 같이 공부를 시작한 여자친구 실력이 월등히 좋아요. 조이도 여자친구에게 미용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웃음) 사실 다시 일을 시작한 지금도 주말마다 교습소를 다니면서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훗날 여자친구가 창업을 하면 도움이 되고 싶어요.



▲ 전문가의 지식으로
반려동물 미용에 대해 설명하는 송해빈님

사랑꾼이시네요.

그렇게 미용 가위를 놓고 회사로 돌아오셨어요.

커리어에 대한 갈증, 미래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회사 안팎으로 늘 응원해 주시는 저희 팀장님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

고, 제 이런 고민에 대해서도 털어놓을 수 있었죠. 포스트 코로나로 업황이 회복되는 시점에 좋은 기회를 만나 다시 SM C&C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오래 해왔던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런지 적응도 빠르게 했습니다. 퇴사 전에 담당했던 고객사가 아직까지 SM C&C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덕분에 오랜 담당자분들을 다시 만나기도 했고요. 너무 반가워 주셔서 제가 더 감사했죠. 소통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나 다시금 깨닫는 요즘입니다. 반려동물 미용은 오롯이 혼자 하는 일이라 자주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너무 들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업무 자체가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다 보니 늘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각국의 입국 허가 조건이 늘 바뀌기 때문에 매일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과 관련된 신문은 매일 보고 외교부, 대사관 홈페이지도 자주 확인을 하죠.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니까요. 매일 퇴근시간 전엔 그날 발권한 내역을 뽑아서 체크하는 것이 루틴이 됐어요. 각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등을 확인하고 고객사에 안내해 드리죠.

지금은 베테랑이지만 아찔했던 실수 경험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신입 때 출입국 업무 중 저지른 실수가 생각나네요. 고객사 출장자의 미국 출장을 위해 이스타(ESTA,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승인을 신청해야 했어요. '불법 약물', '범죄 이력' 등과 관련한 여러 질문에 '예', '아니요' 체크를 하는 도중 실수를 한 거예요. 대형 실수죠. 대사관에 메일을 보내 적극 소명을 해 겨우 수습은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진땀이 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따라오기 마련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작은 실수가 대형 프로젝트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시죠?

기억에 남는 출장 에피소드 소개해 주세요.

약 2주간 한 기업의 장기 근속자 해외 연수에 동행했던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

박 후 발리로 넘어가는 일정이었는데, 인도네시아 저가 항공사의 연착이 심해서 힘들었거든요. 항공사 직원에게 항의도 하고, 고객사에 대신 해명도 하며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오랜 시간 하늘길이 막혔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해프닝마저도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위), 상하이 동방명주 탑(아래)에서 기념 촬영 / 출처=송해빈 님

해외 출장을 즐기는 나름의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행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오후 6시쯤 하루 일정이 마무리돼요.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공식 업무

종료 후 호텔에서 캔맥주와 컵라면을 먹는 것이 저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웃음)

또 새롭게 찾은 즐거움은 여행 마그넷 모으기요. 처음부터 열심히 모았던 것은 아닌데, 어느 날 냉장고에 가득 붙은 마그넷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이 많은 곳에서 열일을 했구나’ 하고 되짚어 보는 계기도 되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모아보려고 합니다.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여행지도 궁금하네요.

인도네시아 발리요. 일을 하며 열 번을 넘게 가본 곳이에요. 친구들이 발리에 놀러 간다고 하면 눈을 감고도 알려줄 수 있을 정도죠. ‘발리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를 보면 인사할 수도 있다’고 허풍을 떠는 적도 있고요.

바다도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어서 좋아요. 다양한 형태의 숙박과 독특한 문화를 즐길 수도 있죠. 더위를 싫어하는 저를 사로잡은 최고의 여행지랄까요.(웃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놀러’ 가고 싶은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즐겨보고 싶어서요. 당장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근미래에 신혼여행으로 가려고 아껴 두고 있어요.

(잠깐의 심은 있었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법인영업 업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주말에도 연락을 받아야 하고 출장도 잦죠. 작은 실수도 용납이 안 되고요. 그럼에도 이 업무만의 매력이 있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큰 고객사의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어요? 글로벌 호텔 체인 담당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업무가 아니라면 해볼 수 없는 경험들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험보다도 더 큰 원동력은 사람이고요. 제가 다시 SM C&C로 돌아온 이유도, 돌아와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오래 봐온 동료들 덕분입니다. 모두가 이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일하죠. 그런 에너지들이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애정이 느껴지네요.

해빈님의 인생 모토는 무엇인가요?

저는 늘 ‘즐겁게 살자’는 말을 아로새기고 삽니다. 지

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땐 일이 아닌 일상에서만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도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걸 30대 후반이 되어서 깨달았지 뭐예요. 진심을 다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지금이 좋습니다.

30대 후반이시라고요? 동안이시네요!

그 얘기 꼭 써주세요.(웃음)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볼게요.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나는 뭘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 상황에 직접 부딪치며 깨닫게 됐죠. 처음 깨달았을 때는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쁜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일 부러 열심히 하지 않았던 적도 있고요. 지금은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물론 퇴사를 했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마냥 무겁지는 않아요. 그것을 동력 삼아 더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크거든요. 현재 계획은 올해 안에 대형 거래처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팀원들의 힘이 필요하죠. 저, 우리 팀원들 사랑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지난호 Best 3 다시 보기



ADVERTISING

5? Oh! WOW!!

[+자세히 보기](#)



SM INSIDE

3대 500?
이제는 마인드도 벌크업할 때

[+자세히 보기](#)



CONTENTS BIZ.

지니의 램프에서
무엇이 나올까?

[+자세히 보기](#)



뉴스레터를 새롭게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고
수신을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12층-14층 | 발행인: 남궁철
© SM Culture&Contents, All rights reserved.

[↓ PDF 다운받기](#)

